

조던 NBA 결승서 신은 운동화 6개 803만 달러에 팔려



▲ 8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팔린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 컬렉션. 사진=AP뉴시스

이 운동화들은 모두 조던이 해당 연도 NBA 결승에서 신은 것들이다. 그는 우승 직후 신발을 한 짝씩 벗어 임원에게 선물했다. 특히 1991년, 1993년, 1996년, 1997년 신발에는 조던의 친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더비 측은 "이는 조던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낙찰을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소더비는 이를 '황제의 컬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컬렉션은 조던의 운동화 낙찰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에는 그가 1998년 NBA 결승 2차전에서 신은 신발이 220만달러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1998년 NBA 결승에서 입은 유니폼이 1010만달러에 낙찰되며 조던의 소장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 컬렉션이 8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팔렸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지난 4일, 조던이 미국프로농구(NBA) 우승 당시마다 신었던 농구화 6개 세트가 803만2800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컬렉션은 1991년 에어조던 6, 1992년 에어조던 7, 1993년 에어조던 8, 1996년 에어조던 11, 1997년 에어조던 12, 1998년 에어조던 14로 구성됐다. 모두 한 짝씩 총 6개다.

엠비드 수술에 미국농구 '화들짝' ... '올림픽은 어찌라고'

미국프로농구(NBA)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수술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미국 농구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NBA 경기는 둘째 치고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하계 올림픽에 엠비드가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엘 엠비드. 사진=mdjonline.com

드는 프랑스 국적도 갖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엠비드가 빠질 경우 미국은 센터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월드컵에서도 미국은 센터 부재로 장신의 유럽 국가에 고전했다. 특히 프랑스는 224cm의 빅터 웬반야마를 보유하고 있어 올림픽에서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구단은 전날 센터 엠비드가 이번 주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엠비드는 이번 시즌 강력한 MVP 후보였으나 결장 경기 수가 많아 사실상 탈락했다. MVP 후보가 되려면 정규 시즌 65경기 이상을 출전해야 하는데 엠비드는 이미 13경기에 나서지 못해 2년 연속 MVP 수상은 힘들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엠비드가 NBA 2023-2024 시즌 막판에 코트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긴 했지만 무리할 경우 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엠비

PGA투어 승인 공식 경기에서 '꿈의 57타' 나왔다



▲ 크리스토퍼 말 솔라. 사진=(GolfMonthly)

PGA투어가 승인하는 공식 경기에서 사상 최초로 57타를 친 선수가 나왔다.

주인공은 PGA투어의 2부 투어 격인 콘페리투어에서 활동중인 만 30세의 크리스토퍼 말 솔라(칠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말 솔라는 8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보고타 CC 파코스 코스(파70)에서 열린 콘페리투어 아스타라 골프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13언더파 57타를 기록했다.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인 말 솔라는 이날 보기 없이 이글 2개와 버디 9개를 잡아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말 솔라의 종전 베스트 스코어는 67타였다.

대회가 열린 파코스 코스는 콘페리투어가 열리는 대회 코스 중 가장 짧은 코스로 파70에 6254야드로 세팅됐다. 골프장이 해발 2743m에 위치해 평지 보다 공이 더 날아가는 이점도 있다. 그래도 PGA투어에서 직접 코스 세팅을 한 공인 대회였다. PGA투어 측은 짧은 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페어웨이를 좁게 세팅했으며 그린도 까다롭게 했다.

57타 이전의 최저 타수는 58타로 지금까지 공식 대회에서 총 7차례 나왔다. 짐 퓨릭(PGA투어)과 브라이슨 디샬보(LIV골프), 알렉스 델 레이(캘린지투어), 이시카와 료, 김성현(이상 일본투어), 제이슨 본(캐나다투어), 스테판 예거(콘페리투어)가 각각 58타를 기록했다.

151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8					7		2	5
		9	1			4		7
2	6				4			
		1	7	9				2
5					1		9	
	9			4		8		
	3					2		6
9		8	6		2			
			4	1			8	

날말퍼즐 정답

1	오	산			2	한	고	3	비					
	솔		4	끝	5	내	기		6	상	7	식		
8	길	9	손			리						용		
			10	사	리	사	욕			11	여	유		
12	미	래				랑		13	흥	삼				
	달							14	미		15	추	16	신
17	이	18	골			19	새	끼	줄					장
		20	자	갈	치						21	우	세	